



새 아파트團地, 독서실·水泳場등 갖춰야 건설부, 내년부터 義務복리시설強化

건축사 골프 同好人 친선경기

본협회 전국회원중 골프를 즐기는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 1 회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골프동호인 친선경기가 지난 12월 7일 유성 CC.에서 열렸다. 때마침 겨울 답지 않은 화창한 날씨로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는데, 앞으로 연4회 정도 골프모임을 갖도록 중론을 모았으며 85년 춘계모임은 서울지부에서 주관토록 자진 약속되었다.

이날 참석현황은

○본협임원진에서 오웅석 회장 외	7명
○서울지부에서 이춘상 지부장 외	9명
○충남지부에서 민영기 지부장 외	8명
○경기지부에서 권순재 회원 외	4명
○충북지부에서 이종만 회원 외	2명
○전북지부에서 전형직 지부장 외	3명
○전남지부에서 조춘원 지부장 외	7명
○대구지부에서 김종규 회원 외	6명
○경남지부에서 이종태 전·지부장 외	3명
○제주지부에서 강요준 회원 외	2명
도 합	61명

한편 경기성적은 「피어리어」방식을 적용한 결과, 메달리스트에는 Gross80의 광주 고재선 회원이, 우승에는 Gross 90, NEt 72 타를 기록한 정병문 회원이 각각 영광을 차지 하였으며 그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준우승 G. 84 HC. 10.8 Net 73.2-강학선 회원
3위 G. 85 HC. 10.8 Net 74.2-김용만 회원
4위 G. 89 HC. 14.4 Net 74.6-박몽룡 회원
5위 G. 89 HC. 13.2 Net 74.8-이용하 회원

장차상 265.0m -여옥동 회원
근접상 1.8M -강은홍 회원
행운상 -김화자 회원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새로 조성되는 곳에는 단지의 규모에따라 독서실 테니스코트·수영장·장거리공중전화 등 부대복리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건설부는 24일 아파트단지의 체육시설을 강화하고 독서실설치, 난방방법의 개선등을 골자로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내년초부터 시행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3백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10가구당 1.2m² 면적의 독서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에 이용되도록 하고 1천가구가 넘는 아파트단지에는 장거리자동공중전화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아파트단지에서 1km이내에 학교운동장등 운동시설이 있을 때는 운동시설 설치를 면제해 주던 체육시설 설치기준을 강화, 5백가구가 넘는 경우 배구장 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중 1개소를 반드시 갖추도록하고 이와함께 1천가구 규모단지에는 테니스코트 1면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2천가구가 넘을 때는 테니스코트를 1천가구마다 추가로 1면적을 확보하거나 수영장이나 소년축구장 소년야구장등을 갖추도록 했다.

건설부는 또 중앙집중 난방 방식 아파트의 난방효과를 높이기위해 4층에서 10층까지의 아파트는 2단계, 11층에서 15층까지는 3단계로 난방구획을 분리하도록 하고 15층이 넘을 때는 5층마다 1단계식의 난방구획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아파트단지에 들어서는 상가는 그동안 판매시설로만 허가돼 부동산소개업소 헬스클럽 당구장 탁구장등 일부업종의 입주 불가능하던 것을 상가면적의 3분의 1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종전폭 6m 이상의 진입도로가 확보돼야했던 공동주택의 허가기준을완화, 50가구미만일 경우 폭 4m 이상만 확보되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아파트 지하실 주차장 활용 市, 주차설계 의무화

서울시는 날로 늘어만 가는 아파트 단지내의 주차난을 덜어주기위해 아파트건물 내의 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개조, 활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하구조를 주차장으로 설계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중이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현재 아파트의 주차시설이 2백50m²당 1대꼴로 규정돼있어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다.

시는 현재의 아파트 주차장 설치기

준이 이처럼 비현실적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용면적83m²(25평) 이하짜리의 아파트단지는 종전대로 두며 83m²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선 1백50m²당 1대꼴로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에 협의중이었다.

시가 83m²이상의 아파트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시키기로한 평수가 클수록 자가용의 보유 대수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당초 기존의 아파트 지하대피소가 제대로 이용이 되지않고 방치돼 있어 이를 입주자들을 위한 가구별 창

고로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대다수 아파트들이 심한 주차난을 안고있어 용도를 창고에서 주차장으로 바꾸기로 한것이다.

이에따라 아파트단지내에서는 처음으로 옥내주차장이 생기게되며 겨울철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등 옥외 주차장이 갖는 불편을 다소 덜게 된다.

시 관계자는『기존아파트들의 지하

대피소 구조가 주차장으로 사용될수 있도록 돼 있어 큰 문제점은 없다』고 밝히고『진입로와 램프시설등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아파트내 지하대피소를 주차장으로 개조하려면 서울시에서 대수 선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방침이 확정되면 신청없이 주민들의 의사대로 개조될수 있다.

종합貿易센터 設計확정 日세계이社작품 選定

質協이 오는88년 준공목표로 서울永東의 韓國종합전시장에 서울 韓國 종합무역센터의 건물규모가 54층으로 최종 확정됐다.

質協은 26일이 트레이드센터의 건립계획을 확정하고 난뒤 그동안 현상설계를 받아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현상설계응모에는 美國의 스킨드모어 오잉즈 & 머릴社등 2개社와 日本의 니켄 세계이社등 해외에서 3개

社, 국내에서 原都市건축연구소등 5개社가 참여했으며 우수작에는 日本의 세계이社 작품이 선정됐고 韓國의 原都市건축연구소와 正林建築 작품이 각각 가작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質協은 이들 우수작으로 결정된 설계를 토대로 오는 12월말까지 최종계획설계를 마무리 지은뒤 당선된 3개社가 공동으로 본 설계를 완성, 당초 계획보다 한달 앞당긴 내년 4월께 건물을 착공할 예정이다.

지하철驛 연결아파트 건립 국내 처음 九老구역에

지하철역과 출입구가 연결되는 아파트가 처음으로 세워진다. 서울시는 대림전철역앞의 구로구 구로동 120번지일대 3천여평을 불량주택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키로 하고 여기에는 아파트와 상가가함께 들어서는 복합빌딩을 지어 그 출입구는 지하철역과 바로 연결 하기로 했다.

이지역에는 대상부지의 절반인 1천5백여평을 지하철역과 연계하는 대규모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1천5백여평에는 20평짜리 아파트 1백50가구를 지어 주민들을 입주시키고 상가건물 3천5백여평을 건립, 인근구로지역의 중심상권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상가와 아파트가 한꺼번에 들어서기는 처음인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가 조성되고 그옥상에는 녹지공간등을 확보하며 4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도림천위에 세워진 대림지하철역에서는 상가의 3층으로 출입구를 연결해 아파트주민들과 상가 이용자들이 지하철역에서 곧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만큼 소음이 심할 것으로 보고 아파트의 배치는 아파트의 측면이 지하철쪽으로 배치되도록 하며 일반 아파트에 비해 벽을 더 두껍게 하고 벽면은 조각이나 벽화로 처리, 지하철노선 주변의 도시경관을 가꾸기로 했다.

지하철역 주변의 아파트건설은 이미 지하철생활이 보편화된 日本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로2구역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하철역세권 개발측면에서도 앞으로 이같은 지하철역과 아파트를 연결하는 개발방법을 널리 도입키로 하고 옥수동·돈암동등지의 재개발사업에도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質協이 확정한 韓國종합무역센터의 조감도

